

스크린 나들이

4일간의 설 연휴 오랜만에 극장가를 찾아 영화 한 편을 관람해보는 것이 어떨까.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개성 가득한 국내 영화들을 골라 볼 수 있다. 번잡한 분위기를 피하고 싶다면 OTT 플랫폼을 '나만의 극장' 삼아 작품을 관람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번 설에는 해외 대작부터 애호가 층이 두터운 시리즈물, 개성 강한 한국영화 등이 관객들을 맞는다.

지난 31일 개봉한 폴 킴 감독의 판타지 '윙카'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초콜릿 메이커였던 윙카 윙카(티모시 살라메 분)가 초콜릿 공장을 열기 전 과거사를 그린 외전이다.

청년 윙카의 꿈은 디저트의 성지 '달콤 백화점'에 자신만의 초콜릿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모자와 푼돈 12소버린, 그리고 약간의 마술실력 뿐이지만 그는 세계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동료 누들(칼라레인)과 여행하며 낡은 여인숙에 숙박하던 윙카는 공장장의 부인 메리스 스크러빗, 블리처의 계략에 빠져 숙박비 빚더미로 진다. 윙카는 그녀의 공장에서 일하며 초콜릿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름의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밤마다 초콜릿을 훔쳐가는 소인 '움파 톱파', 경찰 등의 위협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7일 개봉한 액션, 코미디 '아기일'도 이목을 끈다. 영화는 '킹스맨' 시리즈를 연출한 매튜 본이 감독을 맡아 액션영화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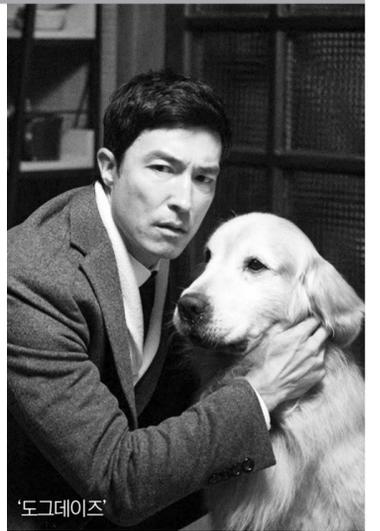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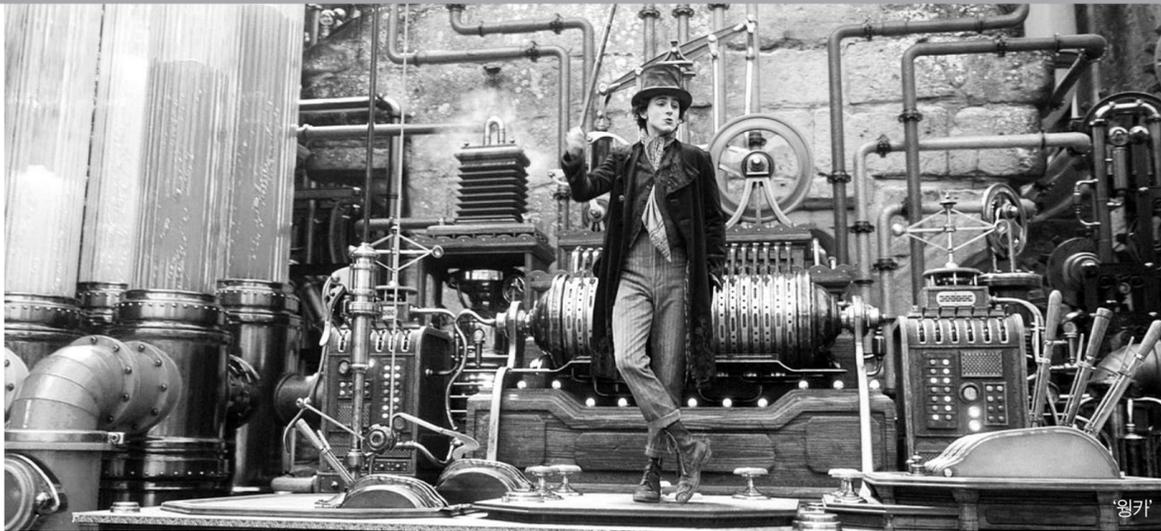
작중 엘리(델러스 하워드)는 스파이 세계를 현실감 있게 써낸 베스트셀러 '아기일'을 써내 성공 가도를 걷는다. 마지막 권 발행만 앞두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의문의 적들에 둘러싸인 엘리와 스파이 에이전트(샘 록웰)이 구해준다. 그는 소설 아기일의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 엘리와 전 세계 스파이들의 표적이 됐다고 알려준다. 두 사람은 소설의 다음 챕터를 쓰며 레전드 요원 아기일(헨리 카빌)을 찾아 나선다.

한편 7일 개봉한 김덕민 작 '도그데이즈', 하준원 작 '데드맨', 김용균 작 '소풍' 한국영화 세편은 모두 제작비 100억 원을 넘지 않는 작품들이다. 지난해 설 연휴 개봉한 황정민, 현빈 주연 '교섭'과 설경구, 이하늬, 박소담 주연 '유령'이 각각 168억, 137억 제작비가 투입됐던 것에 비하면 몸집을 줄였다.

김덕민 작 '도그데이즈'는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며 유일한 가족 반려견 '완다'를 잃어 버리고만 민서(윤여정)의 이야기다. 동네에 사는 케이팝 작곡가 선웅(정성화)과 정아(김윤진)가 완다를 보살피고 있었지만, 민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배달 라이더 진우(탕준상)와 반려견을 찾아 나선다.

관객들은 "강아지와 함께 극장에 가고 싶다"거나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관람하면 인류애가 충전될 것 같다"는 등의 기대평을 남기고 있다. 제작비는 줄었지만 매니아 층이 확고한 반려동물 이야기 등 개성 있는 주제를 그려 감성 포인트를 마련했다.

하준원 작 '데드맨'에서는 인생 벼랑 끝에서 생존을 위해 이름까지 팔아버린 이만재(조진웅)가 탁월한 계산능력 하나를 믿으며 절호의 기회를 잡아가고 있다. 1000억 횡령 누명과 자신의 사망 기사까지 접하면서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데드맨' 이 되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열기 전 이야기 '윙카'...인류애 충전 '도그데이즈' 자녀와 함께 '아기일' 극장판...친구들과는 '아기일'·'데드맨' 등 추천 '길위에 김대중'·'울산의 별'·'이어지는 땅' 광주극장·독립영화관 상영



만다. 그는 중국의 사설 감옥에 끌려가 정치 컨설턴트 심어사를 만나 목숨값을 담보로 위험한 제안을 받는다. 음모의 배후를 찾아가며 악의 세력을 파헤치는 내용.

김용균 작 '소풍'도 감독의 로고라인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엄마가 꿈에 보이는 은심(나문희)은 사돈지간 금순(김영옥)이 불쑥 찾아오자, 함께 고향 남해로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곳에서 우연히 자신을 짝사랑하던 태호(박근형)를 만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우정, 사랑의 마음을 되새긴다.

7일 개봉한 '아내모네', '플랜75', '검은 소년'을 비롯해 '아기일' 극장판: 사이렌 스톤의 비밀도 스크린을 장식한다. 이외에도 라미란 주연의 범죄 추적극 '시민덕희'와 최동훈 감독의 판타지 '외계인 2부'는 현재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한편 광주극장과 광주독립영화관 등 지역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도 있다. 지난달 개봉해 최근 LA에서도 상영한 '길위에 김대중'은 물론 '세기말의 사랑', '울산의 별', '이어지는 땅' 등이 바로 그것.

제76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지난 31일 개봉작 '추락의 해부'도 지역극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남편의 추락사로 한순간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유명 작가 '산드라',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과 아내결혼이다. 단순 사고일지 우발적 자살 또는 살인인지 비밀스러운 사건의 전말을 해부하는 스릴러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OTT 정주행



'살인자난감'



'스즈메의 문단속'

웹툰 원작 '살인자난감' 최우식·손석구·이희준 출연 스틸러물 동일본 지진 모티브 '스즈메의 문단속'... '헤일로 시즌2' 기대작

직접 극장가를 찾기 어려운 이들은 넷플릭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 등에서 개봉 예정인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넷플릭스에서 9일 선보이는 '살인자난감'은 동명의 원작 웹툰을 바탕으로 최우식, 손석구, 이희준 등이 출연하는 스릴러물이다.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 이탕(최우식 분)과 그를 지독하게 쫓는 형사 장난감(손석구)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로 일찍이 원작 웹툰에서도 호평받았다.

웨이브가 이달 독점 공개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은 2011년 동일본 지진을 모티

브로 재난이 주는 상실과 극복을 주제로 녹였다. 극장에서 55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으며, 역대 국내개봉 일본영화 관객 수 1위에 등극하면서 재난 3부작('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의 대미를 장식했다.

티빙은 파라마운트 대작 '헤일로 시즌2'의 개봉(8일)을 알렸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26세기 미래를 배경으로 생존의 대서사를 써가는 작품으로 수려한 영상미가 압권이다. 호주계 한국인 하에린이 연기하는 관하 역, 공정환이 출연하는 반란군 수장 진하 역 등 한국계 배우들의 활약도 볼거리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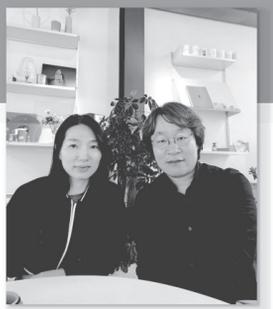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